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

The Task of Bibliotherapy for the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김 수 경(Soo-K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우리나라 도서관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성과 |
| II. 도서관계에서 독서치료의 위치 | IV. 도서관 서비스로서 독서치료 확대 방안 |
| 1. 서양의 경우 | 1. 독서치료 용어의 문제 |
| 2. 우리나라의 경우 | 2.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수용 |
| III. 우리나라 도서관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한계와 성과 | 3. 문헌정보학에서 독서치료의 교육과 훈련 |
| 1. 우리나라 도서관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특징과 한계 | 4.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확대 방안 |
|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서관계에서 차지하는 독서치료의 위치를 살펴보고, 2000년 이후 한국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독서치료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도서관 서비스로서 독서치료의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방안으로는 네 가지 문제, 즉 독서치료 용어의 문제,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수용, 독서치료 교육과 훈련 과제와 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키워드: 독서치료,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한국 도서관, 독서교육, 독서지도, 독자상담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explores the task of bibliotherapy for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There are three subjects for a study. First, I consider the position of bibliotherapy in library community. Second, I examine the outcomes and the critical point of an experimental bibliotherapy program conducted in Korean Library since 2000's. Third, I find out the tasks of bibliotherapy for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It is four tasks that have the problem of bibliotherapy terminology, the librarian's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bout bibliotherapy, education and training for bibliotherapy in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and plans for the expansion of bibliotherapy service.

Keywords: Bibliotherapy, Experimental Bibliotherapy Program, Korean Library, Reading Guidance, Reading Education, Reader's Advisory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skyoungkim@pusan.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론

연구자는 그동안 독서치료 관련 실천과 연구를 하면서 고민이 있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독서치료를 할 토대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는데도 독서치료에 대한 요구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¹⁾을 볼 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연구하면서 나 스스로도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은 했던 질문들이 있었다. 내 안에서 가장 먼저 크게 울렸던 질문은 ‘독서치료? 요즘 같은 시대에 독서도 어려운데, 책으로 치료를 한다고?’였다. ‘독서치료가니까 많은 양의 독서를 해야 하고, 이용자를 잘 진단해야 하고 심리학, 정신의학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너무 어렵다’ ‘독서치료가 만병통치약이나?’ ‘사서들이 무슨 자격으로 치료를 해’ ‘무자격 시술자가 자칫 환자를 죽일 수도 있잖아’ 등,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주변으로부터 받았다. 연구자는 이것이 독서치료에 대한 오해와 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독서치료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수 십년 되는 동안 도서관계에서는 30여년의 ‘준비기’를 거친 후 2000년 이후에야 도서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독서치료의 모형이 개발되어 도서관에 수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이 한국적 독서치료의 도서관 모형은 김정근 교수에 의해 개발되고 부산대학교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이하 책정연)’에서 실천하는 ‘도서관 기반 사서 중심의 체험형 독서치료’³⁾가 그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프로그램 형태로 적용할 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사서는 ‘의도된 소극성’을 가지고 ‘치유서(주로 자가치유서 self-help books를 사용한다)’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 활동을 통해 치유적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야말로 ‘치유’ 자체에 목적을 두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타 분야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에 관한 지식 전달 중심’의 독서치료 프로그램⁴⁾과는 달리 이를 ‘체험형’이라 일컫는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미 고유 브랜드화된 독서

1) “독서치료가 뜬다 - 책 읽으며 내 아픔 스스로 깨닫고 치유해 가요 : 공공도서관 프로그램·모임 ‘인기,’” 부산일보(2010. 9. 1), 12면. 이 기사에 의하면 2010 하반기 부산지역 도서관에서 개설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5개 공공도서관과 1개 대학도서관(구덕·구포·부전·중앙·시민 공공도서관, 부산대 도서관)에서 개설되며,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후 관련 책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남구도서관, 구덕도서관 등의 독서치료 책모임 회원들의 체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2) 김정근, “독서치료의 현단계,” 도서관문화, 제46권, 제2호(2005. 2), p.46.

3) 김정근,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사서와 도서관 기반의 접근을 생각하며,” 경기도사서연구회지(2004. 12).

4) 다학문적인 성격을 가진 독서치료는 타 분야에서도 2000년 들어 독서치료를 활발히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운영 기관별로는 크게 4개의 그룹 즉, 교육기관(대학의 대학원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도서관, 민간단체, 가상 커뮤니티(원격교육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운영 기관의 진행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유·아동학, 상담심리학, 기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독서치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신성회, 부산대 책정연, 글나라연구소, 하계독서치료연구소, 한국독서치료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체험형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신성회와 부산대학교 책정연을 들 수 있으며, 한국독서치료학회, 글나라연구소, 한국독서치료학회 등에서는

치료 프로그램이라 평가된다.

이렇게 독서치료가 거의 황무지 상태에서 도서관의 고급 서비스 품목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도서관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웰빙 열풍,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심각한 사회 병리 문제들 - 존속살인,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높은 자살율과 이혼율, 조기유학,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교이탈현상, 성매매, 성폭력 사건, 학력위조, 외국인 차별, 게임중독 - 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약화, 깊숙이 자리잡은 마음의 상처 문제들, 이를 적절하게 돌보지 못했던 사회 문화적 분위기, 미약한 정신건강 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음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대중적 심리학과 정신의학 서적 출판시장의 확대, 그리고 전사회적인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 평생학습사회의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지적 욕구와 교육열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기 독서치료를 도서관 현장에 보급하고 서비스로 적용하는 데 부산대 책정원 회원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서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은 독서치료 이론의 보편성과는 달리 독서치료 현장 적용성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독서치료의 특수성이라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걸어온 독서치료의 역사와는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의 도서관 분야가 도서관 선진국에 비해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지만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도서관 분야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⁵⁾는 진단에 대해 ‘지금 여기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단계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의 한국형 모델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과제들을 다음의 연구 문제로 요약하여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도서관계에서 차지하는 독서치료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도서관계를 비교해서 고찰한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특징과 한계 및 그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 한계와 성과를 토대로 한국형 독서치료 모델 개발을 위해 실무적, 학문적으로 풀어내어

대체로 지식형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조나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pp.30-32). 현재는 독서지도 혹은 독서치료와 유사한 이름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더욱 늘어났다.

5) 이계환,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29. 그러나 한국 도서관계에 나타나는 독서치료 현상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해 이계환은 같은 논문에서 첫째, 문헌정보학에 뿌리를 둔 이론적 기반의 확보 혹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모델이나 이론 개발, 둘째, 도서관 경영과 서비스 측면에서 독서치료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셋째, 독서치료 업무를 담당할 사서 양성 교육의 과제를 꼽고 있다.

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 남짓 한국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독서치료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데 나서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독서치료가 도서관에서 보다 폭넓은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나아가 문헌정보의 학문적 영역에서 독서치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도서관계에서 독서치료의 위치

1. 서양의 경우

책은 고대로부터 치료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테베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The healing Place of the Soul)”이라고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책은 오래전부터 지식과 정보를 기록·전달하고, 심미안을 기르며, 여가활동을 돕는 역할 이외에도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와 임상활동은 20세기 들어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서치료 분야의 연구와 활동이 발전한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주로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 1, 2차 대전이후에는 점차 사회 회복시설, 상담기관이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correctional institutions) 등 지역사회 시설로 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특히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 병원도서관분과에서 독서치료 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으로 마침내 독서치료가 미국 사서직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⁶⁾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서치료는 의학 분야를 넘어 확대되었는데,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부터 1960년대까지 독서치료 논문은 다양한 문헌정보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중요한 학위논문들이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무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 이래로 교육환경에서 독서치료가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학교에서 독서치료는 대부분 사서에 의해서라기보다 교사와 상담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6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가 도서관의 서비스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동안은 독서치료는 발달적인 문제를 가진 어린이를 돕고 부정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자가치유서에 관심을 돌렸다. 이 시기는 어린이사서들이 독서치료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서들의 관심은 그 당시에 저하되었다. 1990년대는 소수의 사서들만이 ALA

6) Rhea Joyce Rubin,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Phoenix : Oryx Press, 1978), pp.14-15.

의 독서치료 모임에 참석하였고, 결국 ALA 독서치료 위원회는 해체되었다. 그 이후로 독서치료에 대한 소수의 논문만이 도서관 관련 문헌에 발표되었다.⁷⁾ 이것이 미국 도서관계의 간략한 독서치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래 독서치료는 그 명칭 자체가 도서관계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서비스 영역에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미국의 도서관 현장에서는 독서치료 용어는 사라진 듯하다. 대신 독서치료 서비스의 내용은 독자자문(reader's advisory)⁸⁾ 서비스에서 독서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대처 지원(coping assistance)을 하고 있다.⁹⁾ 현재는 민감한 문제(sensitive issues),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라는 카테고리로 도서관의 온라인으로 상황별 목록을 제시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일반적이다.

한편 영국의 형편도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사서들이 들어는 봤지만 독서치료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독서치료는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1세기 들어서 사서들에게 독서치료 업무(bibliotherapeutic work)로 인식되고 있다. 독서치료 업무는 사서들간에 '책을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를 공유하게 되었다.¹⁰⁾

영국 도서관에서 독서치료에 대해 최초로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로, 국립보건원(NHS : National Health Service)과 지역 보건당국(Health Authority)과 협력을 통해서 '책처방(BoP : Books on Prescription)¹¹⁾'이라는 용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

-
- 7) Ya-Ling Lu, "Helping Children Cope: What is Bibliotherapy," *Children and Libraries*(Spring 2008), pp.47-48.
- 8) 독자자문(RA: reader's advisory)은 미국 공공서관을 중심으로 20세기 초부터 오락적인 독서를 하거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개별이용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guidance)로 활성화되면서 주목을 받은 영역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독자자문 서비스는 사서와 이용자와 자료(책)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표준독서목록 개발 형태를 띠어 개별 이용자 요구에 대해 소홀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미국에서 독자자문서비스(RA)는 공공도서관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며, 도서관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다양하게 구축하고자 하는데 독자자문서비스(RA)가 이러한 시도를 활성화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은자, "독자자문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262. ; 이계환, 전계논문, p.15. ; Connie Van Fleet,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Challengers and Opportunities," *Reference & User Service Quarterly*, Vol.47, No.3(2007), pp.224-229. ; 최상희, "성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독서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62에서 재인용.).
- 9) Ya-Ling Lu, *op. cit.*, p.48.
- 10) 이 내용은 Liz Brewster가 2007년 1월~9월간 행한 연구 프로젝트로서, 독서치료 업무를 실행했던 직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독서치료 업무 계획(Bibliotherapeutic practice Scheme)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수집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는 *Aplis*에 세 개의 시리즈 논문으로 실려 있다. Liz Brewer, "Medicine for the Soul: Bibliotherapy," *Aplis*, Vol.21, No.3(September 2008), pp.115-119. ; Liz Brewer, "The Reading Remedy: Bibliotherapy in Practice," *Aplis*, Vol.21, No.4(December 2008), pp.172-177. ; Liz Brewer, "Reader Development and Mental Wellbeing: The Accidental Bibliotherapy," *Aplis*, Vol.22, No.1 (March 2009), pp.13-16.
- 11) 의학계에서는 책처방(Books on Prescription)과 아울러 보다 새로운 개념의 정보처방(information prescriptions)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책 대신 각 정신장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은 브로셔 형태로 제공된다(D. Chamberlain, D. Heals, and I. Robert, "Bibliotherapy and information prescriptions: a summary of the published evidence-base and recommendations from past and ongoing Books on Prescription Projects," *Journal of Psychiatric*

역의 보건당국과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국민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주로 논픽션(nonfiction texts)을 제공한다. 이 책처방(BoP : Books on Prescription) 서비스는 2003년 영국의 웨일즈(Wales)의 수도인 카디프(Cardiff)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산되었다. 책처방(BoP) 서비스의 절차는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 책이 선정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서가에 배치해 둔다. 고객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방문하여 책처방(BoP)을 받아 도서관을 방문하면,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그들에게 책을 제공한다.

2000년 이래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서치료 업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조 독서치료(self-help bibliotherapy)로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관한 논픽션 자기치유서(self-help book)를 처방하거나 안내한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 UK'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처방된 자기치유서를 사용한다. 둘째, 창조적 독서치료(creative bibliotherapy)로서 정신건강과 웰빙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소설, 시, 자서전 혹은 창작 작품을 주로 사용한다. 셋째, 일상적 독서치료(informal bibliotherapy)로서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창조적 독서치료 기법을 적용, 독서 그룹을 통한 책 읽기, 직원에 의한 책 추천, 도서관의 책 전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도서관과 지역사회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한다.¹²⁾

책처방(BoP) 서비스는 첫 번째 유형인 자조 독서치료(self-help bibliotherapy)에 해당된다. 자조 독서치료와 창조적 독서치료는 도서관 현장에 폭넓은 의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사서들간에 독서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족해서 같은 이름하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책처방(BoP)은 하나의 기치 아래 자조 독서치료를 통일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¹³⁾

이러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한 책처방(BoP)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독서진흥 활동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손쉽게 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에서는 이 책처방(BoP) 서비스로 우울증 치료에서 연간 5백만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정신건강 비용 절감 효과와 아울러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 도서관에서는 기존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독서 서비스를 해오면서 책에 대한 지식과 지역민에 대한 이해 위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책과 관련 정보 및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5(2008), pp.24-36.).

12) Liz Brewer, "Medicine for the Soul: Bibliotherapy," *op. cit.*, pp.115-116. ; Liz Brewer, "Reader Development and Mental Wellbeing: The Accidental Bibliotherapy," *op. cit.*, p.13.

13) Liz Brewer, "The Reading Remedy: Bibliotherapy in Practice," *op. cit.*, p.173.

이용자 개발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영국의 책처방(BoP) 서비스와 유사하게 독서치료 개념에 기반한 책처방(Prescribe Books) 서비스를 한다. 이는 남 오스트레일리아의 솔즈베리(Salisbury)시의 공공도서관에서 노인들과 외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책을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도 도서관은 지역의 개업의들(GPs), 노인건강센터 등과 협력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책처방(Prescribe Books)을 홍보하는 브로셔에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다.¹⁴⁾

그것이 웃음, 깨달음 혹은 어떤 것이든 책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책을 읽는 얼마동안 우리는 고통을 잊을 수도 있고,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경험한다.

위의 것은 환자(혹은 고객)들에게 책처방(Prescribe Books)을 알리는 것이고, 아래의 것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이다.

만약 당신이 환자를 위해 치료 혹은 처치의 일부로서 책을 읽도록 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우리와 그들과 지역 사회 모두를 도울 수 있다. 당신이 이 개념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책처방(Prescribe Books) 브로셔를 만들었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독서진흥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치료 개념에 바탕을 둔 책처방(Prescribe Books) 서비스를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류중희가 “도서관과 비블리오세라피”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1990년대까지는 간헐적으로 연구만 되고 현장 적용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책정연 회원을 중심으로 도서관 현장에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독서치료를 도입하였다. 그 사례로는 경남 창녕도서관의 조명숙 관장이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 모음》(2002. 4)과 《마음을 움직이는 책들 모음》(2002. 9)을 발간하고 관련 책들을 따로 서가에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울산 지역에서는 김순화 팀장을 중심으로 현장 사서들이 독서치료 연구모임을 만들고, 독서치료 목록을 개발하고, 독서치료 코너를 만들고, 정신과 의사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강좌도 열고, 어린이와 주부

14) Bernice McSwain, “Bringing it all together: Salisbury Reads,” *Aplis*, Vol.21, No.2(june 2008), p.64.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독서치료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부산에서는 2003년 하반기부터 남구도서관에서, 2004년 상반기 양산도서관에서는 본 연구자가 주부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부산 남구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외부에서 지원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었지만 도서관에서 서비스로 적극 도입하여 독서치료 목록작업, 독서치료 코너 배치, 후속모임을 도서관 독서회로 발전시켜 7년간의 동아리활동의 공로로 2010년에는 부산시의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으며, 사서의 재교육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부산과 인근 경남 공공도서관에서 그들 도서관 형편에 맞게 독서치료 서비스를 위한 목록 작업, 팸플릿 작성, 서가 배치, 독서치료 프로그램 교육 강좌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경기대 한윤옥 교수, 대림대 황금숙 교수의 활동으로 직접 혹은 제자들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체험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2005년부터 사서연구회 형태의 '(연합운영)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타 도서관과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남산도서관이 주관하여 워크숍, 독서치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였다. 2009년에는 20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참여하였고, 초·중학생 및 학부모 총 38팀, 370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순환보직에 의한 서비스 단절이라는 맹점도 극복하고 자체 연수 기능도 강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은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독서체험과 독서활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및 내면치유를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고, 참여자의 정서순화 및 자녀이해와 원만한 상호관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담사서 2인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구립도서관 및 지역사회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였다. 참여 학교 및 기관은 2009년에는 18팀, 137회를 운영하였다.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독서여행'은 장애인시설의 지적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남산도서관 독서치료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남산도서관은 이밖에도 장애여성 대상 한글교육,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남산도서관 중심으로 펼쳐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동은 도서관과 지역사회, 사서와 지역주민간의 신뢰와 협력, 도서관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책 읽는 지역사회,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큰 의의라 할 수 있다.¹⁵⁾

우리나라 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는 도서관의 독서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의 하나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는 미국에서 사용되던 reading guidance를 '독서지도'로 번역하여 독서에 관한 '안내(guidance) 혹은 상담(advisory)'보다는 '교육'에 치중해서 독서지도(reading guidance) 혹은 독서교육(reading education)¹⁶⁾ 서비스 영역의 하나로 독서치료가 도

15) 이승은, 지역사회 협력기반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p.40-41.

입되었다. 여기에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던 평생교육 서비스의 확대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독서의 영역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세 영역, 즉 교육(education)이 목적인 독서지도(reading guidance), 교정(remedy)이 목적인 독서클리닉(reading clinic), 치료(therapy)가 목적인 독서치료(bibliotherapy)로 나누기도 하고,¹⁷⁾ 다르게는 책의 영역에 따라 수양을 위한 제1영역의 독서, 지식 획득을 위한 제2영역의 독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제3영역의 독서로 나누기도 한다.¹⁸⁾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에는 제1, 제2영역의 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장서개발을 해왔으며, 대체로 인격 수양과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과 지식 획득을 위한 독서 목적을 위해 찾아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다 제3영역의 독서라고 할 수 있는 독서치료가 도서관에 도입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매체, 인력의 준비도가 낮아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도서관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는 참여자인 지역 주민에게 제3영역의 책, 즉 치유서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았다¹⁹⁾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도서관에는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목록개발, 독서치료 코너, 책전시회, 후속모임 동아리 결성, 지역사회 기관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사서직 직무분석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직무에서 9개의 책무 중 ‘공공도서관 독서활동서비스’에는 15가지 핵심작업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 서비스, 정보서비스, 평생교육 업무는 점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²⁰⁾ 따라서 독서치료는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독서활동 서비스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로

16) 독서교육은 독서지도와 흔히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독서교육이 더 광의의 개념이다. 독서지도는 독서교육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강조한 것이며, 독서교육은 인간교육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쓰이고 있다(신현재 등편,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서울 : 박이정, 1993), pp.8-9).

17)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는 어떻게 하면 책을 즐겁게 읽고 책을 좋아하고 읽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독자의 독서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좋은 책을 선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독서클리닉은 읽기 부진아(정상에 해당학년의 읽기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독서장애아가 그 대상이 되며, 독서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거하여 독서수준을 정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독서치료는 읽기 부진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상장애 혹은 성장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이 오히려 독서치료의 적극적 대상이 된다(김현희 등, 독서치료(서울 : 학지사, 2001), pp.20-22.).

18) 김정근, “제3의 독서영역,” 교수신문(2002. 4. 29).

19) 물론 모든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계량화된 수치로 그 효과를 측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참여자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후 쓴 후기나 후속 동아리모임 결성과 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독서치료가 참여자들의 정서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여러 논문, 단행본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의 단행본을 참고바람. 김정근 등, 독서치료 사례연구(서울 : 한울, 2007). ; 김정근 등,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체험적 독서치료(서울 : 학지사, 2007). ; 김정근 등, 독서치료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서울 : 한울, 2009). 총 4권의 독서대학 자료집(2006~2009) 등이 있다.

20) 공공도서관의 9개 책무는 정보자료조직, 정보시스템관리, 정보자료서비스, 독서활동서비스, 문화·평생교육서비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노동조²¹⁾는 사서교사 임용 시험 및 각종 사서 선발고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안정성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이 있는 사서 및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4개 교과목을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으로 제안하였으며, 전공심화정도에 따라 독서지도론은 필수교과목으로 3학년 2학기에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독서 혹은 독서치료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봉사론(참고봉사론, 정보서비스론, 정보추구행태론, 이용자교육론, 정보이용론, 아동서비스론, 정보소의계층서비스론, 학술정보서비스론)도 필수교과목으로 2학년 1학기에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환은 문헌정보학과에서 교과과정에 '독서치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5개 학교가 있고, 독서지도론이나 독서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의 절반 이상이 강좌의 내용에 독서치료를 소개하고 있다²²⁾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독서치료는 도서관 실무에서는 독서활동 서비스의 하나로,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독서교육론의 하위 영역의 하나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서치료가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마음의 상처와 관련 있다.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가정에서도 오고 학교에서도 오고 사회에서도 온다. 사회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군사독재,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많은 억압과 아픔, 가난을 경험하면서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가정에서는 가부장 문화, 효 사상,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가슴 깊숙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학교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과 교사들은 강제적이며 경쟁적인 입시중심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 몰개성화되고 몰이해 속에서 방황과 아픔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정신건강에

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공공도서관 대외협력, 자기개발이 있다. 공공도서관 독서활동 서비스의 15개 핵심작업에는 연간독서활동운영계획 작성하기, 계층별 독서회 운영하기, 하루독서교실운영하기, 방학중 독서교실 운영하기, 찾아가는 현장 독서지도 운영하기, 방과후 독서활동 지원하기, 독서토론 수업하기, 계층별 독서권장도서목록 발간하기, 독서프로그램 홍보자료 발간하기, 독서관련 전시회 개최하기, 도서관회전 개최하기, 공공도서관 독서감상문대회 개최하기,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하기, 스토리텔링 운영하기, 북토크 운영하기가 포함되어 있다(안인자 등,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사서제도 개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pp.55-56).

21) 노동조,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09. 12), pp.452-468.

22) 2009년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 독립과목으로 개설된 학교로는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대 등이며 대학원 혹은 학부에 개설되어 있다(이제환, 전계논문, pp.13-14.). 그러나 현재 독서치료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01년부터 2008년도 1학기까지는 일반 대학원 혹은 교육대학원에서 독서치료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육과정에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없지만 실제 경기대학교에서는 한윤옥 교수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2002년부터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독서치료 수업을 하고 있으며, 황금숙 교수에 의해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2006년, 2009년에 개설되었다고 한다. 또한 창원전문대학에서는 '독서와 정신건강'(3학점)이라는 교과목 명칭으로 독서치료 강의를 하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출판시장이 커졌으며, 독서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면서 독서치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목으로 도입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이는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도서관의 치유 기능의 부활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치유 기능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게 하는 현상이다.

Ⅲ. 우리나라 도서관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한계와 성과

1. 우리나라 도서관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특징과 한계

우리나라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발달적 그룹 독서치료다. 참여자는 주로 공공도서관을 찾는 주부와 어린이였지만, 최근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발로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도 적극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매체는 성인의 경우 주로 논픽션(non-fiction)의 하나인 자기치유서(self-help books)를 활용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그림책, 동화, 소설 등 픽션 관련 책이 주로 사용된다. 매체는 상황별로 주어진다. 이 때 상황이란 참여자의 상처 부위를 말한다. 진행자는 자신의 치유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고자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 경험을 가진 사서 혹은 독서지도와 독서치료 경험이 있는 강사로 치유서와 참여자의 만남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도된 소극성을 지닌다. 독서활동으로는 치유적 글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 경청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자기기술평가와 매체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다음 프로그램의 참고자료로 삼는다.²³⁾ 이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서관 기반 체험형 독서치료를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비교한다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집단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매체는 자기치유서를 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해지는 책처방(BoP) 서비스처럼 정보 제공을 통한 방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그 대상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고 그룹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의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주도적, 독립적으로 행해

23)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한 과정에 대한 것은 김순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울산남부도서관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 성인(주부) 대상 독서치료프로그램은 김수경,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 어린이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박금희,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지는 도서관의 독서 서비스의 하나로서, 독서활동으로 치유적 글읽기·쓰기·말하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통합 독서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후속활동으로 책모임 동아리가 결성되어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나누는 것으로 보면 독서토론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별 독서목록 제공, 독서코너 운영, 책전시회, 나아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협력 서비스의 하나로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로 개발되었다. 도서관의 대내외적 연계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일상적 독서치료라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일컫는 독서안내(reading guidance) 혹은 독자자문(reader's advisory) 서비스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²⁴⁾에 대해서 독서치료의 세 요소, 참여자, 매체, 진행자와 기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에 관한 문제이다. 1) 대상이 한정되었다. 주로 성인(대부분 주부)이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최근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은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북지관, 시설, 중학교 등)를 보인다. 2)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였다. 3) 그룹 크기가 다소 커서 참여에 제한이 따랐다. 따라서 그룹은 10명 내외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매체에 관한 문제이다. 성인에게는 주로 자가치유서를 사용하였다. 독서치료 발달의 역사는 치유서의 발달과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²⁵⁾ 인지·정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요소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자가치유서가 독서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그러나 아직 독서치료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1) 참여자의 독서수준, 장르와 매체 선호 등을 반영한 좀더 다각적인 독서치료 매체 개발이 미비하였다.²⁶⁾ 2) 대체로 동일한 매체를 읽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참여자 수만큼 도서관에서 매체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참여자들이 스스로 매체를 구하여 읽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셋째, 진행자의 문제이다.²⁷⁾ 1) 준비된 사서의 부족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24) 도서관 내부 사서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순화(2005)의 전계 논문과 도서관 외부 사서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수경(2006)의 전계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5) 17세기까지는 주로 옛날이야기, 성경 등 종교적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사용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소설 장르가 개발되면서 20세기 중반까지는 교훈적 종교 서적에 더하여 소설 등 문학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의 대중적 글쓰기에 힘입어 자가치유서가 출판되면서 자가치유서가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에는 문학류가 주로 활용된다.

26) 자가치유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무엇보다 자가치유서는 치유서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한 치료기법과 만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여자의 마음상함 상황 혹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치료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치유서를 사용하면 사서의 치료적 훈련의 부족을 보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가치유서는 여러 모로 도서관의 형편에 맞는 매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참여자의 독서수준, 장르 및 매체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독서매체가 개발된다면 참여자에게 다양한 매체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27) 사서들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직접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도서관 서비스로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 진행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회의 부족, 사서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달적 독서치료와 임상적 독서치료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치료적 개입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서는 치료자로서 적극적 개입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넷째,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즉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매체의 준비, 진행자로서 사서의 준비,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위한 인력, 예산, 시설 등의 구비가 미비하였다. 2) 대체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개설되어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서비스로 확대되거나 사서의 역량 강화로 기여하는 바가 적다. 이것은 비단 독서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문제점이기도 한다.

한편,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200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동학, 상담심리학 등의 실천과 교육활동에서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 속에 위험 요소가 숨어있다. 이 위험 요소를 김정근은 세 가지 함정, 즉 수입학의 함정, 경계혼란의 함정, 목적상실의 함정의 요인을 꼽았다.²⁸⁾ 수입학의 함정이란 서양에서 발전된 독서치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빚어지는 현실적합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경계혼란의 함정이란 특히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에서 두드러지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상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임상적인 처치를 선불리 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이다. 목적상실의 함정은 주로 독서치료 교육의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독서치료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나 방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타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도서관 조직이 가지는 문제점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독서치료 자체가 가지는 다학문적인 속성이 결합된 문제들이라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의 한국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계로 영역을 좁혀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IV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일부 도서관과 서울 남산도서관 중심의 연합 운영 사서들, 그리고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사서가 직접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데는 도서관 조직 및 업무 성격의 문제, 사서 자신의 준비도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 과제라 여겨지므로 이 연구에서는 깊이 있는 진단은 생략하고자 한다.

28) 김정근 등, “독서치료에서 ‘체험’의 요소,” 독서치료 사례연구(서울 : 한울, 2007), pp.27-30.

2. 우리나라 도서관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성과

초기 단계의 한계점과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기반으로 행해진 체험형 독서치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성과를 보인다.

첫째, 참여자들에게 독서치료를 통해 삶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은 물론 도서관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였다. 이에 대한 증언들은 여러 글들에서 언급되었다. 이 중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린이 독서치료를 하고 나서 그 동안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털어놓으라고 하셨지만,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독서치료에서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뿐하고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울산남부도서관 2004, 이정석(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내게 있어 공공도서관은 이제 내 삶을 바꿔나가고 도움을 받는 평생기관으로 느껴져요. 저의 사회적 부모는 바로 도서관이며 독서치료라 할 수 있어요(양산도서관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한마디로 제 삶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매년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이번 독서치료가 국가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준 혜택같았어요. 이런 기회를 준 도서관과 진행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진해기적의도서관 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둘째, 도서관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독서 관련 서비스가 확장되었고 이용자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서의 전문성 강화, 사서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사서 개인적으로도 자존감 향상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²⁹⁾

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혹은 이미지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서를 전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책의 꺾테기만 많이 알지 책을 얼마나 읽었겠냐는 냉소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 고압적인 태도의 사서에게 불만도 많았다. ... 우리 도서관의 사서선생님은 '멘토'이며 '의녀'다.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니 이게 바로 의녀 아닌가요?(구덕도서관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29) 박현영,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사서선생님께서 원하는 책을 받으면 신뢰감이 생긴다. 예전에 “신간 들어왔어요?”라고 물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 책이 좋을까요?”라고 물어진다. 선생님이 권해주는 책은 현실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해결되는 기분이 든다(양산도서관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좌를 하는 분과 친분이 생기지 사서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서가 운영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달랐어요. 굉장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양산도서관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사서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되었다.

업무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예전에는 왜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만 가득 했다. 하지만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사랑방법을 알게 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도서관은 효율보다 가치를 따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 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있을까요, 어느 강좌가 단 몇 회기 만에 한 사람의 30년 이상 묵었던 억압을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독서치료의 가치이고 보람이지요.

셋째,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목록개발과 프로그램 진행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 독서치료의 기반 조성을 이루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나서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 보급’³⁰⁾하였으며, 2006년~2009년 4년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독서대학’³¹⁾을 진행하여 독서치료의 대중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독서치료 분야의 많은 연구물들이 생산되었다. 필자가 국회도서관을 통해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³²⁾한 결과 단행본 77건, 학위논문 389건, 학술지 176건, 인터넷자

30)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서울 : 동협회, 2004). ;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청소년·어린이편(서울 : 동협회, 2005).

31)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원을 통해 2006년~2009년까지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대학’을 개설하여 지역을 순회하며 사서관과 일반인반으로 나누어 각 30명 정원으로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6년 경기도 과천시와 대구, 2007년은 대전과 전남 광주, 2008년에는 경남 김해시와 강원도 원주시에서, 2009년에는 청주시와 울산시에서 지역 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내용은 자료집으로도 출간되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치료: 2006년도 독서대학 자료집(서울 : 동협회, 2006). ; 한국도서관협회,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치료: 2007년도 독서대학 자료집(서울 : 동협회 2007). ; 한국도서관협회, 책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2008년도 독서대학 자료집(서울 : 동협회 2008). ; 한국도서관협회, 책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2009년도 독서대학 자료집(서울 : 동협회 2009).

원 11건, 세미나 자료 10건이 검색되었다. 389건의 학위논문 중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³³⁾ 61건이 검색되어 15%를 차지하고 있다. 61건의 학위논문 중 1980년대 생산된 2건의 논문을 제외하고 59건이 2000년 이후에 생산된 논문이다. 2000년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전체 학위논문 1,245편 중 독서분야의 논문은 237편이 생산되어 19%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 이후 '독서' 관련 학위논문 237건 중에 '독서치료' 논문은 61편으로 25%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의 논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의 기본이 바로 세워졌다. 지금까지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은 주로 독서의 방법과 기능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전달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이론은 그저 참고로 하고 상황별로 책을 읽어나간다. 책읽기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며, 사서 진행자의 경우 문헌정보학의 배경을 가지고,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려는 자세,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 등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는 진행자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룹에서 치유서를 읽고, 쓰고, 말하고, 경청하면서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습득한다. 이는 사서가 먼저 좋은 독자로 준비되며, 좋은 '독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다. 사실 연구자인 나도 독서치료를 통해 독서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이 '책읽기' 중심이어야 하며, 읽고 쓰고 말하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독서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연구자는 비로소 독서치료 진행자가 되어서 기존에 하던 독서지도 강사로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온전히 '책'을 함께 나누면서 책모임 혹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여섯째, 도서관과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에 기반한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가 개발되었다. 여러 도서관에서 이러한 협력 형태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주변에서 관찰된 몇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울산교육청과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팀이 2008년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되었다.³⁴⁾ 남산도서관에서는

32) 국회도서관에서 구축된 전자도서관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어로 조사한 결과이다. (('독서치료 OR 독서요법') and(PD1)=1945 and PD1<= 2010)).

33) 전체항목에서 독서치료 OR 독서요법, 학위연도기간 설정을 1945~2010년으로 하고, 전공 영역은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전공영역별 기호에서 사서교육(C80), 문헌정보(D00), 도서관학(G52)으로 검색했을 경우 2006년까지의 학위논문만 검색된다. 2007년 이후의 학위논문은 전공영역 기호 대신 전공명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 학위논문 검색은 다음과 같은 질의어로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검색하였다. 1단계: ('독서치료 OR 독서요법') AND('C80 or D00 or G52'<in>SUCD)) and(PD1)=1945 and PD1<= 2010)) and(PD1)=1945 and PD1<= 2010) => 학위논문. (40건) ; 2단계: ('독서치료 OR 독서요법') AND('사서교육 or 문헌정보 or 도서관학'<in>SUCD)) and(PD1)=2007 and PD1<= 2010)) and(PD1)=2007 and PD1<= 2010) => 학위논문. (21건) 동일한 방법으로('독서치료 OR 독서요법') 대신('독서')로 검색하였다.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http://u-lib.nanet.go.kr/dl/Simple View/> [인용 2010. 10. 25].

34) 울산광역시교육청·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팀, 초등학생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체험형 독서치료(울산광역시교육청, 2008). 여기에는 교사를 위해 총 20회의 교사교육 진행안과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각각 30회의 수업진행안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자료실, <http://after.use.go.kr/> [인용 2010. 11. 20]에 가면 원문을 볼 수 있다.

2006년 5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사서와 함께 하는 독서여행’ 서비스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³⁵⁾ 이외에도 필자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소년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는 부산 서동도서관에서 이어서 진행하였다.³⁶⁾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즉 성매매 피해여성의 쉼터 및 여성센터, 부산 구포도서관과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수강명령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장애인이나 시설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IV. 도서관 서비스로서 독서치료 확대 방안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독서치료가 도서관 서비스로 도입, 활성화되는데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짚어보면서 향후 독서치료 서비스가 도서관에서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독서치료 용어의 문제

국내외적으로 ‘독서치료(bibliotherapy)’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많은 사서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혼란을 가지고 있다.

Lu(2008)는 미국에서 독서치료가 사서들 사이에 불편한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⁷⁾

사서들은 임상적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치료 용어자체가 가장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독서치료 용어는 자격(licensure)과 의학적 처치(medical treatments)와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독서치료의 의학적인 정의만을 채택하는 몇몇 학자들은 정신건강전문가만이 독서치료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진 이들은 독서치료를 실행하는 사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대안적인 용어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속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3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장윤미,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도서관문화, 제51권, 제9호(2010, 9), pp.49-58.

36) 김수경, “문제청소년 교정활동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한국·독일 도서관 컨퍼런스(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8), pp.116-129 참조.

37) Ya-Ling Lu, *op. cit.*, p.48.

미국에서는 '독서치료'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료적인 느낌 때문에 의료 분야의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일각의 생각으로 인해 사서가 독서치료를 한다는 정당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 대안적인 용어³⁸⁾가 제안되었지만 어느 것도 지속적인 우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독서치료 활동을 해나가는 중 용어의 문제가 걸릴 때마다 책정연 회원들은 잠시 한발 물러섰다 가 그냥 '독서치료'로 돌아오곤 했다. 이에 대해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³⁹⁾

가끔 독서치료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일에 비해 내거는 이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처음은 그랬다. 처음은 거부감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도 했지만 지금은 대세에 따르고 있는 편이다. 차라리 '치료(治療)'보다 '치유(治癒)'면 어떠냐, '요법(療法)'이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표현의 강도를 약간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역시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의미하는 바가 거기 거기인 것 같다. 다 테라피(therapy)의 번역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의 시점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번역에 따른 표현의 맛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 실사구시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너 나 없이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치료'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되 그 이름에 값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일에 관계자들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승산이 있는 길일 아닐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국과는 사뭇 다르게 대안요법의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 시중에 독서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인문치료, 문학치료, 저널치료, 이야기치료, 원예치료, 향기치료 등 일일이 꼽자면 한이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불교 사찰, 성당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치유법회, 치유상담, 치유목화도 인기를 모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독서치료만 명칭 문제에 지나친 결벽성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명쾌한 설명이다. 황금숙 교수도 이렇게 말한다. "독자상담(reader's advisory) 및 발달적 예방

38) 독서치료의 유사개념으로 독서상담(bibliocounseling), 독서교육(biblioeducation), 독서심리(bibliopsychology), 개별그룹치료(tutorial group therapy), 도서관치료학(library therapeutics), 독서예방(bibliophylaxis), 문학치료(literatherapy or literatur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글쓰기치료(journal therapy) 등이 있다(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까(서울 : 학지사, 2006), p.44.). 또한 학교도서관에서는 지원적 지식(supportive knowledge)라고도 쓰며, 간호학에서는 어린이 환자교육(patient education)의 일환으로 병과 수술과 입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책을 사용하기도 한다(Jami L. Jones, "A Closer Look at Bibliotherapy," *Young Adult Library Services*(Fall 2006), p.26.).

39) 김정근, "독서치료의 동력," 도서관문화, 제51권, 제4호(2010. 4), pp.59-62.

적 차원의 독서치료 모두 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다면 굳이 용어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긴다”⁴⁰⁾며 용어에 대한 과도한 논쟁은 삼가자고 한다.

이에 대해 영국의 Brewster(2008)도 이러한 혼란은 대체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서들이 일으킨다’고 했다. 아마도 지금 나를 포함해서 독서치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서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독서를 통한 치유체험을 하고 나면 ‘치료’가 ‘독서’를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때문이다.

독서치료는 학제적인 분야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실천 현장에서 독서치료를 도입할 때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자기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응용하여 왔다. 고객에게 임상적 개입 (clinical intervention)을 하는 정신보건 전문영역(정신과, 정신보건 간호학, 정신보건 사회복지학, 임상심리학)에서는 치료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상담심리학에서는 상담의 한 기법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도구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표현 중심의 독서치료로, 문헌정보학에서는 독서지원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독서치료를 어느 하나의 범주(category)로 한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용어는 ‘독서치료’로 쓰지만 각 학문 분야별로 그 응용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서치료에 대해서 도서관계에서 특별히 민감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2.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수용

독서치료가 도서관 사서들에게 잘 수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Jones(200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¹⁾

대부분의 사서들이 전적으로 책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치료(therapy)라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거기에는 이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서들은 그들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그들은 그들이 책을 권함으로써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더 가할까봐 염려한다.

Jones는 사서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영역을 벗어난 일일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책을 권함으로서 더 부담을 줄까봐 염려한다. 또한 Sturm(2003)도 독서치료는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의 한 영역으로서 레퍼럴 서비스의 일환이지, 사서가 직접 치료를 위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서들은 이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²⁾ 또한 최근 Sturm은 미국 도서관계에서 독서치료가 쇠퇴한 원인 중 하나로 소송문제를 들

40) 황금숙,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남산도서관 직무연수 강의자료(2010).

41) Jami L. Jones, *op. cit.*, p.24.

고 있다. 사서들은 독서치료에서 다루어지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소송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한다고 한다. 따라서 독서치료라는 용어보다 가벼운 개념인 reader's advisory를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용어는 달라도 서비스 내용으로서 독서치료는 지금도 도서관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한다.⁴³⁾

Lu는 용어의 문제든 영역 범위의 문제든 독서치료는 도서관의 독자상담 서비스의 일환이며, 독자상담 중에서도 특별한 서비스이므로 오히려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료(healing) 혹은 문제대처에 필요한 정보(coping information)도 제공하자고 한다. 사서는 이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⁴⁴⁾고 주장한다.

독서치료가 독자자문(RA) 서비스의 영역이며, 임상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미국 도서관계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듯하다. 그러나 Lu(2008)는 사서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벗고 직업적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의사들과 협력하는 형태의 미국과는 달리 '발달적 독서치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행해진 독자자문(RA)도 독서 서비스의 하나이다. 독서치료는 독서가 매개된 치료가 목적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때 '치료'란 협의의 '의료적 처치(medical treatment or cure)'라기보다 의료 처치를 보조하는 간호학적 개념인 '돌봄(care)' 혹은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한 '도움(helping)' 또는 발달 과정상에 야기되는 다양한 인생 문제들에 '대처(coping)'하게 하는 개념에 훨씬 가깝다. Rubin(1978)은 독서치료의 범주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룹 발달적 독서치료는 "정상적인 발달과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서, 교사 혹은 다른 '도움을 주는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이는 Robert Havighurst의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 개념과 가깝다"⁴⁵⁾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주로 실행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룹 독서모임에서 치유서를 중심으로 책 읽은 경험과 반응을 나눈 발달적 독서치료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서는 일상적으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로서 독서치료를 위한 목록의 개발과 제공, 이용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독서치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즉 독서치료 코너 운영, 독서치료 책 전시회, 정신건강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고서비스의 일환으로 독자상담의 기초자료로서 목록개발,⁴⁶⁾ 온-오프라인 참고서비스 혹

42) Brian Sturm,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Helping or Healing?"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 Library Science*, Vol.41, No.2(December 2003), pp.191-197.

43) 필자가 방문 연구자로 있었던 UNC(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Sturm교수와 이메일 서신(2010. 11. 4).

44) Ya-Ling Lu, *op. cit.*, p.48.

45) Rhea Joyce Rubin, *op. cit.*, p.5.

46) 최근 6명의 경남지역 사서들이 상황별 독서목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의 질문에 따른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목록"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발표한 창원도서관

은 대출데스크에서 발달과제 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돕기 위한 독자상담(reader's advisory) 서비스, 지역협력 프로그램으로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도서관밖 서비스(outreach service)의 개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단체)에 연결하는 레퍼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3. 문헌정보학에서 독서치료의 교육과 훈련

Margaret Monroe는 독서치료가 독서지도(reading guidance) 서비스 중 하나이며, 참고서비스(reference service), 독서지도(reading guidance)와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인접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 세 분야는 정보적이며, 교육적이고 지도의 필요가 있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참고서비스는 객관적이며 정보적이고, 독서지도는 주관적이며 교육적이며, 독서치료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되었다. Margaret Hannigan은 독서치료 기법은 독자자문(reader's advisory)으로서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⁴⁷⁾

Arthur Commbs 등은 독서치료사의 자질을 논하면서 좋은 헬퍼(helper)는 그 '문제'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이것은 이봉순 선생께서 '사서는 책보다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중심' 서비스 정신과도 부합된 것이며,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독서치료사의 자질과도 잘 맞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자질은 사서의 정보중개자로서 참고서비스정신과도 잘 맞는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자료로 답하는 참고서비스야말로 이용자의 고민까지도 끌어안을 때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사서는 정보탐색과정에서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용자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이용자의 깊은 요구(needs)까지도 이끌어내어서 이용자가 그 정보요구를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조언자, 정보중개자, 교육자의 역할 등 다양한 자질을 갖추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해야 한다.⁴⁹⁾ 하지만 이런 훈련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서관 실무에서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서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며, 실행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런 훈련과정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경험하게 되었다. 그동안 본 연구자는 공공도서관 주부 이용자, 어린이 이용자, 비행 청소년, 성매매 피해여성, (예비)사서, 교사, 복지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료에

박현영 사서의 다음 자료를 참조바람(박현영 등,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 독서치료 상황별 목록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경남 S도서관을 대상으로"). 원문 자료는(사)공공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pla.kr/>> [인용 2010. 11. 20] 공지사항을 참조바람.

47) Rhea Joyce Rubin, *op. cit.*, p.16.

48) *Ibid.*, p.102.

49) Carolle Collier Kuhlthau,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캐롤 콜사우, 정보탐색과정론, 김효정, 이병기 공역(서울 : 한국디지털포럼도서관, 2002).

대한 지식, 이용자에 대한 관심,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돕고자 하는 마음, 경청의 자세와 인내, 조정·관리하는 기술, 배우고자 하는 자세 등을 끊임없이 견지하려고 애썼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독서치료사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들이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인 Stanley가 쓴 『Reading to Heal』 서문에는 자신의 성장과정 중의 다양한 독서경험담이 소개된다. 그러다가 치유 혹은 심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되면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책을 읽으며 주변 사람들과 책을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고객과 상담에서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그녀 개인의 자가 독서치료(self bibliotherapy)의 경험이 개인을 넘어 다양한 문제에 처한 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도와 줄 목적으로 책을 탐구하여 목록을 개발한 것을 그 책에 담아놓았다.⁵⁰⁾ 아주 소박하게 시작한 책나눔이 인생길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좋은 길잡이가 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자가치유서운동(self-healp books movement)을 불러일으킨 Pardeck도 그의 두 책⁵¹⁾을 보면, 독서치료 이론과 실제에 대한 안내 외에는 문제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이 제공된다. 목록에는 문제 상황별⁵²⁾로 도서를 묶어서 각 책마다 간략한 해제와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임상 장면에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도움말(tip)이 포함되어 있고, 그 책에 대한 연령별 흥미수준도 제시되어 있고, 권말에는 저자와 타이틀 색인리스트까지 첨부되어 있다.

변호사인 Stanley와 사회복지학자인 Pardeck의 경우를 보듯이 독서치료는 먼저 책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고객(client)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을 읽고 그 책을 문제 상황별로 분류하여, 실제 고객을 만나면서 그 책들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서가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 무엇이 우선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독서치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책과의 깊고 풍부한 만남이 중요하고 자신이 읽은 책을 자신이 만나는 혹은 만나게 될 이용자들의 문제 상황을 돕기 위해 목록을 준비한다. 그리고 평소 독서회, 독서교실 등을 통해 이용자와 책을 나눈 경험 등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질과 기술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현직 사서들이 재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교육 혹은 팀을 이루어 할 수 있는 자체훈련 방법이다.

예비사서나 현장 사서들이 좀 더 조직적·정규적·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0) Jacqueline Stanley, *Reading to Heal: How to Use Bibliotherapy to Improve Your Life*(London : Vega, 2002).

51) John T. Pardeck,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Guide to Bibliotherapy*(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98). ; John T. Pardeck and Jean A. Pardeck, *Bibliotherapy: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S.A. :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1993).

52) Pardeck의 1998년의 책에는 302권의 책을 6가지 상황(이혼과 재혼, 역기능 가족, 부모되기, 자기개발, 심각한 병, 기초적인 정신장애)으로 분류하였다. 1993년의 책에는 임상적인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 훈련을 받지 않은 학부모, 교사, 사서들도 활용할 수 있는 350종의 어린이책을 7가지 상황(역할모델의 변화, 역기능 가정, 별거와 이혼, 어린이 성폭력, 양육, 입양, 어린이 공포)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4.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확대 방안

독서치료는 좁게는 독서 영역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광의로는 도서관 서비스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폭넓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Mae Benne(1991)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와 사서교사의 역할로 (1) 책을 선정, 조직, 관리하여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2) 정보제공과 독서 지도(reading guidance) 혹은 독서자문(reading advisory), (3)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을 들었다. Beth Doll & Carol Doll은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와 사서교사들은 위의 일상적인 세 가지 업무에 더해 (1)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 대한 지식, (2) 참고서비스 기술과 독서지도(reading guidance)에 대한 경험을 독서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eth Doll & Carol Doll이 사용한 독자안내(reader's guidance)의 내용에는 세 가지 유형의 활동, 즉 독자상담(reader's advisory), 독서토론(book discussions), 북토크(booktalks)이다. 이들은 이 세 가지 활동이 독서치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³⁾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문헌정보학의 학제가 다르며,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서상도 다르다. 최근에 점점 독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도서관계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주제담당사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사서교사의 위상이 커지고,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사서교사에게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확산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질도 요구되고 있다. 현직 공공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 영역도 독서 영역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정도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지원을 주도적으로 서비스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지원에 관한 노하우는 제법 축적되었지만, 실제 강좌진행은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서의 업무로 여겨지는 독서교육조차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⁵⁴⁾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대학 문헌정보학의 교육 과정에서 사서들이 실무에서 독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 못한 것⁵⁵⁾과 독서의

53) Beth Doll and Carol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97), pp.44-47.

54) 공공도서관의 경우, 순환보직의 업무조직, 학교와 사교육시장의 학습을 보강하는 기능적 독서 강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기능의 확대로 인한 도서관의 정체성 혼란과 사서의 전문성 훼손 등을 손꼽을 수 있다.

55) 이명희는 현재까지 대학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이 독서교육에 관한 사서 혹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기능을 못하였기 때문에 어린이 봉사나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의 재교육과정이 사설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제는 문헌정보학과에서도 독서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제안하였다(이명희, "독서교육 교과목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되는 독서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6), pp.42-43.).

본질과 도서관의 정체성에 적합한 핵심 독서활동을 사서들이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책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미비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면 자연스럽게 그 책을 어떤 이용자에게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지 알게 된다. 하지만 사서 개인의 경험으로만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책을 읽고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독서목록을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유용한 독서목록이 되기 위해서는 책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⁵⁶⁾ 따라서 범 도서관계에서 책과 책모임 경험을 공유, 축적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는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독서치료 서비스는 특정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들을 위한 목록 서비스 외에도 개별 독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책을 추천하는 독자자문(reader's advisory) 서비스나 도서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레퍼럴 서비스(referral service) 형태로 이루어진다⁵⁷⁾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문헌정보학에서 연구와 서비스가 일천했던 reader's advisory 서비스 영역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에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속에 독서 서비스 영역이 커리큘럼에 일정 정도의 필요한 수준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독서교육 교과목 내용에 있어서도 공인된 전문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내에서 합의된 교육내용으로 교육되어야 한다.⁵⁸⁾ 이명희가 제안한 문헌정보학에서 독서교육 교과목의 교육내용은 크게 세 부분을 강조하였다. 첫째는 다양한 독서자료의 구성에 관한 내용(4주)이고, 둘째는 독서교육방법에 관한 사항(5주)이며, 셋째는 독서치료(3주)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⁵⁹⁾ 또한 변우열은 우리나라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현실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대학 및 학회보다는 사설기관에서 먼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어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읽기와 독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독서자료는 다양한 주제 분야의 자료를 포괄하지 못하고 문학중심으로

56) 독자의 요구를 반영한 독서목록 개발 사례는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모임)의 모형을 참고할만하다.

57) 이연옥,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54-61.

58) 2007년 5월 1일 현재, 전국 32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독서교육 관련 교과목 운용 상태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학과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중 독서교육 관련 과목들은 주로 독서지도(론) 또는 독서교육(론) 등의 명칭으로 32개교 중 독서교육 교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4개 대학을 제외하고, 28개교에서 45개 과목에 걸쳐 개설되어 있다. 독서교육 과목이 개설된 28개교 중 가장 많은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공주대 5개 과목, 계명대와 청주대가 각각 3과목씩 개설하고 있으며, 그 외 8개 대학에서 2과목을 개설하였고, 18개교에서는 1과목만 개설하였다. 그러나 개설된 교과목의 교육내용은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광범위한 독서교육에 치우쳐 있어서 사서교사로 임용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명희, 전제논문, p.42.).

59) 상계논문, pp.37-41.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교과의 심화영역인 글쓰기, 읽기, 논술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즉 새로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독서교육의 3요소인 독자, 독서자료, 지도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과 철학이 포함되어야 하며, 풍부한 교육경험과 실습경험을 중시하고, 인접학문 분야 즉 심리학, 교육학, 언어학, 아동 및 청소년학, 문헌정보학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인된 자격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문직 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에서 독서교육 지도자의 자질과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속에 독서 분야의 전문성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사설기관이나 문헌정보학 배경 혹은 도서관 현장의 요구가 배제된 이론 중심, 단편적 방법 중심의 독서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에 사서들을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독서치료 서비스를 개발, 진행할 수 있는 독서치료사 양성 방법의 하나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내에서 독서치료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든지, 현재 일부 대학에서 어린이독서지도사 자격증 운영⁶¹⁾과 유사하게 독서치료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독서치료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독서치료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대학원과정에서 정정보건 영역과 협동과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또는 도서관계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무연수 과정 등을 통해 독서치료사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나아가 사서-독서치료사가 어느 정도 양성된다면 (가칭) 한국독서치료사협회를 조직하여 독서치료사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속교육을 통해 자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 하지만 독서치료사 자격증 수여 및 관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와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V. 결 론

독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국가에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나섰다. 이에 도서관계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호기를 통해 전통적 사회 독서시스템으로서 도서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독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숙고할 시점에 있

60) 변우열, “독서교육 지도자의 자질과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211.

61) 부산대학교, 창원전문대학·대림대학·송의여자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어린이독서지도사 자격증 과정(년간 12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증 시험을 거치면 주어진다)은 문헌정보학과와 평생교육원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협회의 민간자격 관련 실무편람에 의거하여 대학전공 연계과정 이수학점 일부 인정제에 의해 학부과정에서 자격증과정과 동일 혹은 유사한 1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의 1/3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다. 앞에서 연구자는 도서관에서 독서치료의 위치를 살펴보았으며, 2000년 이후 한국형 독서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기반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특징과 한계 및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독서치료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독서치료의 위치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 서비스의 하나로서 독서교육의 하위 영역이라고 규정하였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자, 매체, 진행자 및 기타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도서관 및 사서의 역량 강화, 독서치료 서비스 기반 조성, 독서치료 분야의 많은 연구물의 생산, 독서 프로그램의 기본원리 확립, 지역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아웃리치 서비스 개발 등 6가지가 있었다. 이에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독서치료에 대한 용어의 문제 : 이는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 (2) 독서치료사로서 사서의 인식과 수용 문제 : 독서치료를 독서 서비스 영역으로 본다면 큰 무리가 없으며, 도서관 서비스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학문적으로나 자격 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 따라서 사서들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영역과 결합하여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문헌정보학에서 독서치료의 교육과 훈련 과제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서 개인의 풍부한 책에 대한 경험과 책모임에 대한 경험을 축적, 공유한다. 문헌정보학에서 기본적인 사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독서영역과 정보서비스 영역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관련 보안을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학부에서 부전공 트랙을 제공하거나 평생교육원 독서치료사 과정과 연계 운영,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도서관 전문연수 기관에서의 교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확대 과제 : 독서 서비스와 정보서비스가 결합하여 보다 다각적인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독서교육, 독서상담, 독서정보제공, 레퍼럴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독서지원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사서들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 독자의 독서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상담하여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던 미국의 독자자문(RA)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서비스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고 독서치료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독서상담과 독서정보제공 등을 위해 다각적인 독서지원서비스⁶²⁾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62) 최상희는 reader's advisory를 독자자문서비스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독서지원서비스'라고 하였다. reader's advisory

영국처럼 국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하는 형태를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아직은 의학계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시기상조인 듯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요구에 의하면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해 지역 사회 전문 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로 독서치료 서비스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최근 장애인법 개정으로 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이 때 다문화서비스와 연계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서비스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성을 감안하여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로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익을 위해서 도서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독서치료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이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국가단위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최신 출판에 따른 업데이트를 한다. 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목록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도서관 기반 사서중심의 모범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하여 '독서치료 모범 사례집' 형태로 제공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꾀한다.
- (2) 독서치료 목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Havinhurst의 발달 과제와 심리 정서적 마음상태의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Havinhurst가 6단계로 인생의 발달과업을 나눈 것⁶³⁾에 기초하여 각 단계별 발달과정과 연관지어 독서치료 목록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치료(유아기),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독서치료(아동기), 직업 선택과 준비를 위한 독서치료(청년기), 배우자 선택 및 결혼생활 준비를 위한 독서치료(성인초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중년기), 은퇴의 적응과 이후 삶의 준비를 위한 독서치료(노년기)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6단계의 발달과업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과 결부하면 얼마든지 세부적인 독서치료 목록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3) 아직 미개발되었던 독서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도서관에서는 세밀한 독서목록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로 하

는 국내에서 독자자문서비스로도 쓰이고 있으나 자문은 직접적으로 사서에게 의견을 묻는 개념이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독서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독서지원서비스'로 지칭하였다(최상희, 전개논문, p.62.). 우리나라에서 reader's advisory 서비스에 대한 연구나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용자의 개별적인 독서관련 요청에 대한 자문은 다소 어렵다. 이보다는 이용자가 독서생활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은 가능하리라 본다.

63) Havinghurst, R. J., 발달과업과 교육, 김재은 역(서울 : 박영사, 1996).

는 이들에게 연결하는 레퍼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4) 지역사회 정신보건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를 개발할 때 조심할 것은 예방이나 처방이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진 어린이청소년은 전문가에게 연결한다. 경미한 정도의 장애 혹은 과도기적인 발달과제를 안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방법은 독서지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해서 교사 직무교육, 공무원 교육, 기업 교육 등과 연계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5) 나아가 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때는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만으로는 어렵고, 소외 계층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독서치료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쉼터,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및 여성센터, 비행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혹은 소년원, 성인 재소자를 위한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 다문화 가정,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상 '독서치료'를 중심에 두고 독서 서비스가 중요해진 이 때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도서관의 조직 문제(인력, 예산, 조직 운영방식, 사서의 선호 등의 문제), 사서의 자발적 의지와 열정, 문헌정보학 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력과 협조 등 아직 해결되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용자들이 독서치료 서비스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독서치료는 이제 이룩기를 지나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직 문헌정보학과 내에서 교과목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도서관 실무 현장에서는 전국 도서관으로 확산되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의 블루오션이라 할만하다. 독서치료의 개념과 원리는 도서관 선진국에서 빌어 왔지만 그것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치유서'를 중심에 둔 '도서관 기반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이미 창조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 영역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창조 가능성은 물론, 이용자 개발, 사서역량 강화와 사회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이제 독서치료를 어떻게 수용하여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도서관 실무진과 문헌정보학계의 관심을 모을 때라 여겨진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